



과학기술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등 6개 기관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 明)는 원자력시설 등에서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정된 방재요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4월 1일자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방사능재난대응요원의 방재능력 제고 및 유지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재요원의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동법 제36조제1항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에서는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방재요원의 담당직무별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사능방재교육을 통하여 만일의 방사능재난 발생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재난대응요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마크제도 획기적 개선

- 엄격한 심사에 통과한 기술·제품은 정부가 나서서 판로·수출 지원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 明)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4월 18일(월)부터 4주간 “원자력안전마크 선정계획”을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다.

원자력안전마크는 '02년 12월부터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 및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원자력 발전분야, 방사선 및 기타분야로 나누어 원자력 안전에 기여한 기술 및 제품을 선정·수여하고 있다.

그간 원자력안전마크는 총 72건이 신청되어 27건을 선정·수여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원자력안전마크는 지난 2년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와 안전마크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많은 기대가 예상된다.

금번 실시되는 원자력안전마크는 원자력 안전 심사·검사 실무담당자 및 원자력시설 현장에서 구매·사용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위주로 60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과 8명의 종합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응모한 기술 및 제품을 밀도있게 심사하고, 예비 선정된 안전마크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예고하는 공개 검증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금년 6월중 안전마크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마크에 선정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인증서를 통한 판로 및 수출 지원, 국내외 행사 개최시 전시회 개최 지원, 품질보증체계

및 기술·규제요건 자문 등 원자력안전마크 수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기술 발전과 안

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마크 수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가동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하나로 2005」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는 1995년 자력으로 설계 건조한 국내 유일의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의 가동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단위 국제학술심포지엄 「하나로2005」를 4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대덕 컨벤션 타운과 연구소 내의 연수원 본관 및 INTEC(원자력국제연수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하나로2005」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중성자 초거울의 발명자인 페렌크 메자이(Ferenc Mezei) 교수, 미국표준연구소 중성자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 마이클 로우(Michael Rowe)박사를 비롯한 중성자분야 세계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여 중성자 및 냉중성자 관련 각국의 연구개발 현황이 발표되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제 5회 한일 중성자 산란 회의”, “제 3회 라디오그래피 워크숍2005”, “제 2회 한일 중성자 라디오그래피 워크숍”이 이번 국제학술대회 기간 함께 개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연구용원자로 관련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연구용원자로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6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로용 핵연료 및 재료 조사 시험, 중성자 방사화 분석 등 10여 개 기술 분과에서 발표를

하였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 「하나로2005」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향후 '하나로'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될 전망이다.

30여 년간 축적된 국내 원자력 기술의 결실인 '하나로'는 세계10위권의 성능을 보유한 30MW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서 국내 산학연 이용자들이 중성자를 활용한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에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원자력산업체, 대학, 타 연구기관 등에서 의학·생명공학·환경분야 연구에 '하나로'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용 및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 방사성의약품개발, 원전기기 시료조사 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21C 첨단 기술로 각광받는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 ET(환경기술)의 기초기반시설로서 '하나로'를 중성자 산란연구의 동북아 R&D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첨단 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